

未生 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남들은 어릴 적 나를 보고 영재라 불렀다. 바둑 영재였던 나는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국 각지에서 모인 내로라하는 기재(棋材)들을 죄다 꺾고 해태배와 이봉배를 거푸 석권해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기도 했다. 이후 자신감이 붙은 나는 한국기원 연구생으로 들어가 입단에 올랐다. 연구생 내에서도 꼴리지 않았다. 적응기였던 첫해를 빼곤 기력이 늘고 늘어 중학교 3학년 무렵엔 최강그룹인 1조로 승격, 입단을 목전에 두는 듯했다. 그런데..., 입단대회에서 몇 차례 고배를 마

시면서 점점 무기력해져 갔다. 그리고 만 18세 나이제한에 걸려 연구생을 나오게 됐다. 입단의 꿈도 함께 접으면서.

내가 누구냐고? 성은 '장' 이고 이름은 '그래' 다. 장·그·래!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미생(아직 살아있지 못한 자)』의 주인공 장그래를 만났다. 가공인물이니 인터뷰 역시 기자의 상상력에 의존한 가상인터뷰임을 독자들에게 밝힌다.

-장그래 씨, 책에서 보다가 이렇게 마주하니 기분이 묘한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단 0순위로 여러 번 거론됐었는데, 입단은 왜 못한 거요?

“주변에선 운이 없었다고 하지만..., 실력이 없어서겠지요. 바둑이 썩다면 입단을 왜 못했겠어요.”

-입단 문호가 너무 좁다고 보진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얼버무릴 거요?

“아, 아닙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물으리다. 입단자 수가 많소, 적소?

“꼭 적다고 보기도 어렵지요.”

-그럼 왜 입단을 못한 거요? 본인 입으로 잘나갔다고 하지 않았소.

“나같이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 연구생에 한 트럭이죠. 실력만 있다고 다 입단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요?

“승부의 세계는 약육강식. 한 번 밀린 상대에겐 계속 지는 법입니다. 위로 올라가려면 이를



악물고 극복해야 하나 쉬운 게 아니죠. 그게 아니면….”

-아니면?

“천적이 입단해 빠져나가길 바라야 하는 수밖에.”

-그렇게 한 명 두 명 빠져나가길 기다리다 이 모양이 된 것이요?

“하나 둘 함께 두던 동료들이 빠져나가면 내가 최고가 될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나 또한 늙어가고(?) 있었던 거죠. 어쭙게 봤던 송사리들이 어느새 주위로 몰려들어 내 살점을 뜯어먹고 있었고, 그렇게, 그렇게… 난 점점 약자가 돼 갔죠.”

-독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자리에 있지 않았겠죠.”

한국기원을 나오는 순간은 어느 때와 같다. 나만 달라졌을 뿐이다. 아니, 아직 나조차 달라진 게 없다. 내일이라도 여전히 난 이곳에서 바둑을 두고 있을 것만 같다. 내 눈에 비치는 세상만 달라졌을 뿐이다. 푸르고 높던 하늘과 초록의 나뭇잎과 생기 넘치는 거리가 잿빛으로 변한 것뿐이다. 나는 변한 게 없다. 없어야 한다. (중략) 난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세상으로 나온 거다. 난 열심히 하지 않아서 버려진 것뿐이다.

(『미생』 1권 22~26쪽)

-『미생』을 보면 장그래, 당신이 연구생을 그만 두던 날의 애절한 대목이 나오는데.

“애증의 대상이었죠. 패배한 날은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다가도, 여기서 나가면 당장이라도 내 존재이유가 사라질 것 같은… 돌아갈 집을 잃어버린 거지요.”

-그 부분 말미쯤에 눈물을 펄펄 쏟아내는 대목이 인상 깊습니다. 더 열심히 하지 않은 후회가 든 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책을 다시 보셔야겠군요.”

-아니, 얼마나 많이 봤으면 당신이 다 꿈속에 나



오겠소. 이젠 아주 징글징글 할 지경이요.

“그렇게 보셨으면서 아직도 그 문장이 반어법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까? 입단을 위해 하루에 열서너 시간씩 바둑판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력과 꿈이 좌절된 순간, 어쩔 것 같습니까? 그저 자책할 따름이죠. 더 열심히 해야 했다. 더, 더…”

-눈물이 나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 당신은 제 심정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단지 동정할 따름이지요.”

-나이제한에 걸려 연구생을 그만 뒀더라도 입단의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말이 쉽지요. 20살이 넘어서도 바둑판만 꺼안고 산다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부모님, 친척, 친구들… 모두가 같은 눈빛으로 날 쳐다보지요.”

-이제 입사까지 했으니 입단은 영영 접은 것인가요?

“꼭 첫사랑 같죠. 잊을 만하면 떠오르고… 다시 찾아가 얼쩡거리보기도 하지만 가슴만 아프고.”

-알았어요. 알았어. 입단 얘기는 그 정도에서 접고 사회생활 얘기를 나눌까요? 무역회사 인턴으로 들어간 모양이던데.

“책에 나온 그대로지요. 연구생을 그만 두고 얼마 있다가 군대에 갔지요. 그리고 얼마 전 제



대해 지인의 소개로 서울에 있는 종합무역상사 인턴사원으로 입사했고. 안영이 장백기 한석윤이 인턴입사 동기죠.”

-제법 바쁜가 보던데, 업무는 잘 하고요?

“바둑이면 더 잘 할 수 있을 텐데..., 회사일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입단의 꿈을 안고 한국기원 연구생으로 들어갔을 때처럼 모든 게 낯설죠, 모르는 것 투성이고.”

-장그래 씨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신입은 다 그럴 테니까.

“정석을 외울 때처럼 하나하나 배운다는 각오로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를 보자고 한 진짜 이유를 들어봅시다. 나를 보자고 한 진짜 이유가 뭐요?

“우릴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무슨?

“동정과 편견이 섞인 회색빛 눈초리.... 다 안다는 듯, 이해한다는 듯.”

-깨끗하게 빈귀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군요, 형세가 불리한 걸 감수하고서라도.

“당당해지고 싶었죠. 잃을 게 없으면 못할 것도 없으니까. 장그래, 초반의 실패를 딛고 인생 역전에 성공하다! 아무튼 세상과 추격전을 벌이며 열심히 살아가는 나 장그래의 모습을 바둑 팬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바둑을 포기하며 들고 나온 유일한 재산은 집중력뿐이다. 생각이 번져가는 것은 잡념에 빠졌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생각은 타당하고 마땅한 절대수를 보여준다. 오직 한 길이다. 생각과 경험의 최선. 바둑에선 그것을 정석이라 부른다.

(『미생』 1권 178, 179쪽)

-바둑에 정석이 있듯 사회생활에도 정석이 있을 텐데.

“인턴사원에게 너무 무리한 질문 아니에요.”

-아하, 그런가? 그럼 사회초년생이 생각하는 직장생활의 정석은?

“바둑에서 정석은 오랜 세월동안 시행착오를 거쳐서 완성된 형태잖아요.”

-그렇죠.

“직장생활의 정석도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수면 실패 없이 척척 정도(正道)를 가겠지만 나 같은 사회초년생들에겐 그런 수완기 능력이 있을 리 없지요. 잔피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배우는 것이 직장생활의 정석, 정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호호. 오 과장(장그래가 속한 부서의 팀장)과 김 대리(장그래의 직속상관)가 지금 이 멘트 꼭 봐야 할 텐데.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꼭 써주세요.”

-무뚝뚝한 줄로만 알았더니, 제법 유머까지 있네요.

“호호.”

-업종은 다르지만 사회선배로서 장그래 씨한테 충고하나 하죠.

“...”

-직장이란 성실함 만으로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업무 지식, 소통, 추진력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야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답니다.

“나를 종합무역상사에 입사시켜 주신 후견인 사장님도 그런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스펙도 쌓고..., 특히 자신만의 특기를 살리라고.”

-특기, 좋지요. 그걸 꼭 찾으세요.

“막상 찾으려고 하니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감을 잡은 것 같다가도 돌아보면 아닌 듯 하고.”

-장그래 씨, 당신이 제일 잘하는 것에서 특기를 찾아보세요.

“바둑...”

바둑은 기본적으로 1:1인데, 다면기는 바둑의 고수가 나와 여러 명의 대국자와 두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고수가 다 이기죠. 사회에도 다면기가 있던군요. 사회의 다면기는 좀 다른 것이... 하수도 다면기를 뒤야 한다는 겁니다. 김 대리님과 한 판이 있고, 과장님과 한 판이 있고, 타 부서와의 한 판에, 경쟁상대와의 한 판을 벌여야 하죠.

(『미생』 3권 224쪽)

-연구생출신 신분을 숨기다가 직속상관 김 대리로부터 ‘출소한 장기수’ 얘기까지 듣고서 과거 연구생였다는 것을 고백했잖소. 왜 그랬소?

“괜한 오해를 받는 게 싫었습니다.”

-무슨 오해?

“군대 가기 전 후견인이 사장님으로 있는 회사에 잠깐 근무했을 때 연구생출신 신분을 밝혔다가 ‘바둑 두던 친구라서 고지식하다거나

용통성이 없다’는 등 말들이 마음이 늘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춘 겁니다.”

-김 대리에게 밝힌 것은?

“출소한 장기수라는 오해를 사면서까지 바둑 뒀던 과거를 숨길 이유는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김 대리님은 나의 멘토지요. 모든 걸 가르쳐 주는 멘토에게 나의 과거를 숨기는 것은 내 스스로 거리감을 두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윤태호 작가의 기발한 상상력이 발휘된 거긴 하지만 ‘일기대국’은 대체 뭐요?

“회사에서 그날그날 있었던 일들을 복기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상사와 동료와 바이어 등등.”

-복기해 보니 형세가 어떻던가요?

“버겁습니다. 아홉 점 깔아도 질 상수들한테 오히려 아홉 점을 접어주고 있으니까요.”

-신입시절은 다 그런 거예요. 다들 서툴죠. 서두를 필요도 없고 억지로 이기려고 덤비지 말아요.
“...”

-인턴 꼬리표 언제 떼는 거요? 아마도 그날이 미생(未生)에서 완생(完生)으로 탈바꿈하는 날인 듯 한데.

“저도 모릅니다. 작가님 손에 달렸습니다. 어차피 저는 윤태호 작가님이 지어낸 가공인물이니까.”

-자, 그럼 직장생활 잘하고요. 난 바빠서 먼저 일 어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비록 바둑으로 성공하진 못했지만, 바둑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가상인터뷰/구기호 편집장)

윤태호 작가 /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를 창조해낸 윤태호는 1969년 광주에서 태어나 현재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로 제직 중이다. 1988년 허영만 문하로 만화계에 입문했으며 1993년 『비상착륙』으로 데뷔했다. 이후 『연씨별곡』 『야후』(문화관광부 오늘의 우리 만화상 수상) 『水上한 아이들』 『로망스』(문화관광부 대한민국 출판만화대상 저작상 수상) 『내부자들』 『이끼』(제1회 대한민국콘텐츠어워드 만화부문 대통령상, 문화관광부 대한민국 만화대상 우수상, 부천만화대상 일반만화상 수상) 등 다양한 작품을 발표했다.

